

Paradise Lost

이상준

이상적인 조각은 질료적 실재와 환영사이의 간격을 스스로 드러낸다.

'실낙원'으로 번역된 존 밀턴의 서사 'Paradise Lost'는 태초에 인간이 신의 금기를 어기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지혜를 얻게 되나 그 죄로 말미암아 낙원으로부터 추방당하는 과정을 그려낸 것이다. 창세기에 보면 "이로써 저희들이 함께 눈이 밝아 저희가 알몸임을 알게 되었도다." 3:7 라고 쓰여 있듯이 성경해석의 문맥에서 보면 낙원추방이야말로 비로소 인간문명이 태동하게 되는 시작점이기도 한 것이다.

이 서사시를 전시의 제명으로 가져온 이유는 전시의 주제전면을 종교적 관점에 놓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문명 발생에 대한 기독교적 해석을 조각의 문맥 속에 유비적으로 교차, 배열하려는 것이었다. 내 앞에 제시되어 온 보편적 조각형식의 지향성을 의심하는 나는 구상적 형상이 내포하는 '의미'로 지시된 **대리사물로서의 조각**이 잃게 되는 실체적 위상에 대한 재고를 포함하여 규정된 사물이 가지고 있는 형식의 정형화된 틀, 형식화된 기호의 허구적인 속성을 관통하고자 하였다.

실재에 대한 인식은 타의에 의하여 선점되지 않은 투명한 것이어야 하고, 그러자면 나는 우선 조각을 지시성이 해제된 '대상 그 자체'로 바라보아야 한다.

자존적 형상은 기호화된 조각, 또는 일종의 미술작품이라는 인식의 범주마저 넘어가야만 가능하며 그림으로써 의미의 작용틀이 느슨해진 인식은 형상에 부여된 의미의 취약함을 드러내게 된다. 바로 의미연관이 허약해짐과 동시에 마치 지옥에서 일어서는 사탄의 재기의욕과도 같은 스스로의 자율성을 비로소 보장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한 자율성과 더불어 나는 나의 실재를 세계 안에 되돌리려 한다.

구조형성의 시작점으로부터 외부로 질서를 조직하는 直彫기법의 구사는 '형상이 의미를 갖추게 되는 과정'에 주목하게 하며, 의식적으로 기표와 기의를 이중적으로 배치, 분리하여 조각의 형식이 지닌 가상적 총체성을 해체하고 자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들어낸 조물주와도 같이 자율적 조형규칙을 통한 나 자신의 코기토적 조형해석이 선제하는 실재성을 구하고자 한다.